



## 즉시 사용

담당

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

김창식 심의관, 신민철 사무관  
(044-200-2132, 2135)

## 해외 체류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, 740만 재외동포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-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18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 -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22일(금)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「제18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」를 주재했습니다.

※ 재외동포정책위원회 : 재외동포 정책의 종합적 심의·조정을 위해 재외동포 정책위원회 규정(대통령훈령 제336호)에 따라 96년 설립된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  
- 이번 위원회에는 민간위원과 10개 관계부처 장·차관 등 참석

○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민간위원 10명(임기 '17.12.22-'19.12.21)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.

□ 이날 회의에서는 '신정부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', '소외된 동포들에 대한 지원 방안', '재외국민 보호 강화 및 영사서비스 혁신 추진 방안'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

□ 우선 신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추진 방향 관련, 정부는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간 연대 강화 및 상생 발전 실현이라는 비전하에

○ △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△글로벌 민족 네트워크 활성화 △소외된 동포들에 대한 지원 강화 △재외국민 보호 강화 및 영사서비스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

□ 정부는 그간 재외동포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던 해외 △고려인 동포 △해외 한인입양인 △조선적 재일동포\*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

\* 일본에 거주하면서 한국이나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있는 무국적 재일 동포

-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 체류를 위해 체류자격 완화 방안과 함께 국내 적응 교육 강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
- 해외 한인입양인에 대한 뿌리 찾기 사업 성공률 제고 방안 강구 등 사후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, 국적 미취득 한인입양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
- 조선적 재일동포의 자유로운 모국 방문을 위해 이들의 특수한 지위 및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, 현행 여행증명서 발급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

□ 아울러, 정부는 연간 해외출국자수 2,200만명 시대, 해외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영사지원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검토해나가기로 했으며,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

- 이를 위해 노후화된 영사민원시스템을 개선하여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 전자행정시스템(G4K: Government For overseas Koreans)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.
  - 동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고 민원처리를 위한 공관 방문이 최소화(현행 2회 → 1회)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여권 위변조 기술이 고도화되고 품질 및 디자인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, 보안성이 강화된 PC(Poly Carbonate) 타입의 차세대 전자 여권을 도입(2020년 목표)하기로 했습니다.
  - 이는 우리 여권에 대한 국제 신뢰도 향상 뿐 아니라, 우리 국민의 출입국 편의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※ 붙임 :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민간위원 명단

성명	사진	주요 경력	비고
조병창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민화협 범뉴욕협의회 상임의장</li> <li>○ 前 민주평통 북미주 부의장</li> </ul>	(미국)
오영의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18기 민주평통 서부협의회 회장</li> <li>○ 前 재일민단 중앙본부 부단장</li> <li>○ 前 재일한국상공인연합회 부회장</li> </ul>	(일본)
김부용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천대 동북아 국제통상학부 교수</li> <li>○ 前 국무총리 산하 대외경제정책위원회 연구위원</li> </ul>	조선족 (중국)
박순옥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할린 한인회장</li> <li>○ 前 이산가족협회장</li> </ul>	(러시아)
임도재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장</li> <li>○ 세계한상대회장</li> <li>○ 前 재가나 한인회장</li> <li>○ 글로텍엔지니어·글로텍로지스틱스 대표</li> </ul>	(기타)
정진성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</li> <li>○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</li> <li>○ ILO 일의 미래 글로벌위원회 초대위원</li> </ul>	(학계)
김신일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한국교육학회 회장</li> <li>○ 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</li> </ul>	(학계)
박명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</li> <li>○ 한국사회학회 회장</li> </ul>	(학계)
최광숙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울신문 논설위원</li> <li>○ 인구보건복지협회 비상임간사</li> </ul>	(언론·사회계)
곽재석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장</li> <li>○ 前 법무부 외국국적동포과장</li> </ul>	(언론·사회계)